

700 \$과 養鷄產物



신정일

(유일 농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産業분야에서 生産되는 어떠한 상품도 사회의 어떤 변동적인 요인에 의하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가격이나 소비가 반드시 상하로 흔들리게 된다. 상품의 가격이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어떤 변동적인 요인은 우리가 감히 추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적이고 다인스런 형태로 명멸한다. 어떤 변동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보다 적게 받고 가격이나 소비의 흔들림이 보다 적은 진폭을 나

타면 때 그 産業분야는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산물의 소비와 가격은 마치 수확공식과 같은 年中 변화곡선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경력을 지닌 양계인이라면 대개가 기본적인고도 정확한(?) 이러한 변화요인이다. 때때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지수인자를 가감하여 무난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6월달기-하반 계란이나 닭고기시세의 침체를 연상하고, 학교의 방학-이라고 하면 도시락반찬이 없어지는 계란소비의 수난을 예상하고, 여름의 북더위라고 하

표 1. 육계가격 동향(77. 1월~5월중순)

월일	구분	시세 (원/kg)	상황 및 분석	지속 기간	비고
1. 8		700	생산량부족 여상(76. 11월 이후하조생주)	● 1월초순 약10일간 700원서	● 76. 10월경부터 최초로 천지역에서 뉴깃순 발생시작
1. 10		600	이도적인 유충매개체의 적용개새 유수	● 1월중순~하순까지 약 15일간 저시세 계속됨	● 77. 1월중순부터 뉴깃순피해로 입추중지 현상이 나타남
1. 20		550	상위위 구매력 감퇴	● 구정을 전후로 1월 하순부터 2월하순까지 약 1개월간 높은가격유지	● 77. 2. 16강추위 영하17℃, 서울지역 수, 중, 고교 임시휴교
1. 25		600	구년 구성의 생산물출하의 특징은 양계 장과	● 2월하순부터 시작되던 닭날씨와 소비불안 등으로 인한 저시세는 뉴깃순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으로 4월 중순의 시세예상승을 버늘리고 3월, 4월 계속 2개월간은 시세안정 5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급상승 시작함	● 77. 2. 18 구정 ● 77. 5. 1일요일까지 연 3주째 휴일 우천으로 소비장애
2. 17		750	2. 27의 시세급락이후 계속 소비침체와 저시세 지속		● 77. 5. 5 어린이날 정으로 소비급격 신장
2. 27		550	5. 9일요일 일부지역 620원까지 상승하여서 5. 13일경은 시세 700원까지 거래됨		● 77. 5. 8 어미의 휴일로서 육계가격 급상승
3. 17		480			
4. 1		500			
5. 9		600			

생일이나 회갑등이 전혀없는 윤달의 76년 10월은 그야말로 육계 소비를 가로막는 철벽이었고 윤달이 끝나는 바로 이튿날부터 육계 가격

면 닭고기의 성수기로 모두 알고 있다

대망의 100억\$ 수출의 해인 77년에 들어와서 닭고기의 소비와 가격은 어떤 변화곡선을 나타냈었는가? 77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의 육계소비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表1과 같다.

1월부터 5월중순까지 약 4개월 반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준 기간이 약 45일정도이며 나머지 약 90일 즉 3개월 동안은 별로 좋지못한 시세를 나타냈었다. 기간동안에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변화요인으로서 5월 1일까지 계속된 연 3주째 휴일의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소비가 침체되었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의 캐칭과 5월 8일 어머니날의 캐칭휴일이 급격한 소비심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요인은 비록 닭고기뿐만 아니라 계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5월 9일부터 오르기 시작한 계란가격이 11일에는 특란 30원으로 뛰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양계산물소비 경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 700\$의 의미

경제事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칭찬에 인색하고 평가에 정확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분석誌로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에코노미스트誌는 최근 한국의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前代未聞의 가장 빠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한 同誌는 “한국의 1인당 GNP는 61년의 85달러에서 76년에는 700달러가 되었고 77년에는 8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었고, GNP상승으로 나타난 좋은 결과中的 하나로서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경제분석에 있어서만은 내노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영국의 에코노미스트誌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니 특히 GNP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畜産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 이상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同誌가 그 다음에 지적한 사항 즉 “이 같은 증가의 반은 달려로 表示했을 때의 물가상승때문이었으나 1인당 실질소득은 16년 동안에 5배나 증가했다.”는 항목과 또 “한국이 77년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800달러를 넘는 1인당 GNP는 61년의 물가로 따져 350달러가량 되는데”라고 한 사항이다

● 양계산물 소비의 생활화는 아직 요원하다.

우선 최근까지 나타난 계란이나 닭고기 의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년간 겪어왔던 作中 꼭 같은 공식의 변화요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인당 GNP가 700달러를 상회했지만 단백질 소비경향은 아직 꼭 같다는 것이다. 구정이라고 해서 닭을 삶아 먹고 추위로 소비가 침체되고 휴일에 일기가 불순하다고 해서 닭고기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양계산물이 식탁의 필수식품으로 생활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접대식품이나 경근식품으로서 소비되어지는 상태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76년 10월의 윤달 닭고기 소비침체사건인 것이다. 「생일이나 회갑등이 일체없는 윤달의 10월은 그야말로 육계

이 상승하는 현상…… 국민소득이 아무리 증대되어도 양계 산물은 집
대식품이나 경근식품으로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를 가로 막는 철벽이 없었고 윤달이 끝나는 바로 이튿날부터 육계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필자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한협에서 발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그렇게 많이 생산된 육계가 어떻게 소모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 즉 76년 10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뉴캐슬의 홍수는 산란계, 종계, 육용계를 불구하고 닥치는대로 쓸어갔다 종계의 피해는 초생추의 생산량을 줄이고 실용계의 피해는 조기출하를 단행케하므로써 2kg까지 생산되어야 할 상품이 1kg 정도로서 모두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물론 명확한 통계적인 자료는 없지만, 필자가 느낀 바로는 예상되는 생산량의 약 30% 정도가 감소되었으리라 유추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폐미생산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적었으며,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왕병아리업체가 호되게 당하며 이러한 제반사항이 76년 육용종계의 다량분양으로 인한 생산과잉위험 요소를 매우 많이 상쇄하여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1인당 GNP 700달러와 단백질식품소비증가의 관계라고 할 때 700달러가 갖는 경제적인 의미를 필자는 명확히 연구하여 본 바가 없다 그러나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는 700달러라 함은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으리라 외국의 예를 봐서 700달러—라고 함은 실제적으로 몇년 혹은 몇십년치의 얘기이고 그 700달러의 가치는 그 당시의 가치로 따져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1인당 700달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리라 영국의 에코노미스트가 77년의 800달러는 61년을 기준할 때 350달러라고 가치분석을 한것

은 우리가 소득증가와 단백질식품소비 증가를 생각하고 우리업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심고가 되어 질 것이다 물론 매년 축산 식품의 소비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식품의 소비경향은 마치 품팔이꾼이 하루의 벌이가 살 되어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 졌을 때 친구에게 기분 좋게 한 산 사는 정도의 기분적인 소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호주머니의 사정이 좋으면 사고 좋지 않으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소비경향— 이것은 분명히 양계산업 불안정의 상황을 대변하여 주며, 외국 선진국의 예와 같이 1인당 GNP 700달러와 축산식품의 소비증가가 같이 생활화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직 우리는 양계산물소비의 급상승 이라고 예상하고 흥분할 때가 아니다 만약 76년의 분양종계가 제대로 실용계를 생산하고 그 실용계가 새내로 생산되어 상품화되었다면 과연 올해 전반기의 경기가 이정도까지 이끌어 질 수 있었을 것인가? 앞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다가 올해 분양되어질 약 50만수의 육용종계가 생산할 78년의 경기가 우리를 덜치올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요행운 바라면서 눈감고 있지말고 양계산물 소비의 생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하루 이튿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현재 우리들과 같은 편협한 정신상태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요원하고 안타까운 목표인 것이다